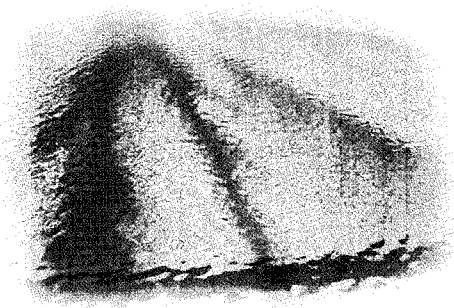


## 물의 독서 이종섭 작

풀을 읽고 나무를 읽는 물은 접근하는 모든 것들을 읽어버린다.  
실물보다 아름다운 물의 접사, 물가엔 물이 반한 마음들로 가득하다.  
먼 산봉우리도 가까이 잡아당긴 물이 세밀하게 그려놓은  
수목화 한 폭, 누구도 물의 숨씨를 따라갈 수 없다.  
새들의 비행과 구름의 산책을 바라보면 새들이 하늘로 날아 가고 구름이 땅으로 내려온다.  
해와 달과 별들을 관측하는 물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창세기,  
우주는 물속으로 돌아가 안식을 누린다.

물그림자가 늘어서있는 물의 거리에는 사람을 읽은 흔적도 보인다.  
그러나 사람이 돌아가면 기록한 이야기에서 사람을 빼버리는 물의 독후감,  
사람은 스스로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으나 물의 자서전에서는 언제나 지나가는 사람  
에 불과했다. 바람을 분석하고 계절을 파악할 때도 마찬가지,  
사물이든 사람이든 움직이는 것들이 가까이 오면 물은 변함없는 애정으로 그것들을 맞이 해준다.  
그러나 떠나는 순간 바로 지워버리는 물의 페이지,  
물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 🌐



제1회 하천문학상  
[중고등부-우수상(시)]

# 나의 친구 천(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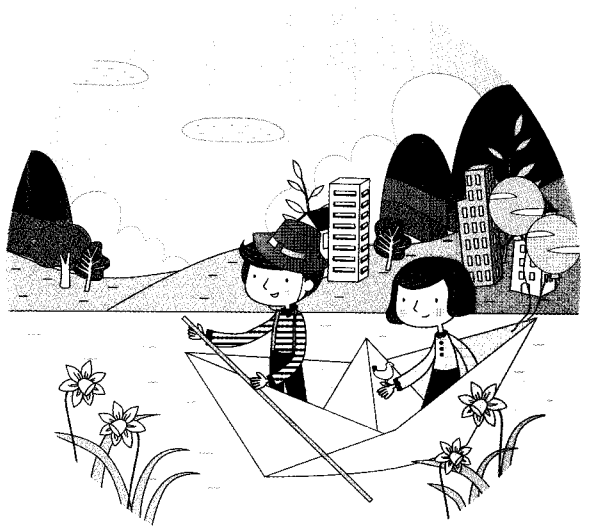
윤치웅작

그 친구가 나에게 손을 내밀기 전까지는  
나는 한 낮 외톨이 승냥이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그 친구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를 보고는  
그 깨끗한 품속에서 맘껏 어우러져 놀았다.  
그 다정한 친구의 이름은 바로 천(川)이.

쌀알같이 뿌려진 햇빛 한 가득 끌어안아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천(川)이의 마음이나  
감기에 끄끙 앓는 가냘픈 딸 입맞춤 해주며  
밤을 꼬박 지새우는 어머니 마음이 뭐가 다를까.

젖지도 안 빠진 아이들과 즐겁게 노래 부르며  
첨병첨병 뛰어노는 천(川)이의 마음이나  
토실토실 귀여운 아들 어부바 해주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아빠 마음이 그게 그거다.

내가 어떤 불덩이 같은 시련과 마주치더라도  
가만히 앉아 이 정다운 친구를 바라보면  
그 불덩이가 봄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아  
나는 이 오래된 친구와 같이 노닐다가  
오늘도 포근히 잠이 들 것 같구나. 🌙



제1회 하천문학상  
[초등부-우수상(시)]

# 고마운 물

권예린作

우물가에서  
물을 떠왔어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가  
물담은 바가지안에  
수건을 담가놓고  
엄마 이마에  
살며시 올려놓아요.

그리곤 기도를 해요.  
'엄마감기 낫게해주세요.'

물이 우리 엄마 살리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물이 참 고마워요.

